

## <먼구름 한형석 선생 약전>

1910년 동래 교동(현 명륜동)에서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인 한흥교 선생의 아들로 태어난 먼구름 한형석 선생은 6세 때인 1915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해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부친의 영향을 받아 항일운동에 투신했다. 중국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신화예술대학 예술교육과를 졸업한 그는 중국에서 잠시 교사로 일하며 <신혁명군가>등을 작곡해 발표했다. 1939년 시안에서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전시공작간부훈련단 예술반 교관으로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시작한 그는 같은해 한국인 독립운동단체인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에 입대해 교관을 맡았다.

그는 항일독립군가 등을 다수 작곡했던 그는 1940년 '신가극 작곡집'을 출간하는 한편 1940년 5월 시안에서 전 3막의 항일 오페라 <아리랑>을 초연하는 등 우리나라 근대음악사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가 광복군에 편입된 후 그는 한때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도 수록된 <압록강 행진곡>를 비롯, <출정>, <아리랑 행진곡> 등 다수의 항일군가를 작곡해 발표했다.

1948년 9월 귀국한 그는 정부의 요직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부산으로 귀향했다. 그는 부산극장장으로 일하면서 영화 <낙동강>제작에 참여하는 등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진력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쟁고아들을 위한 문화교육의 하나로 사재를 털어 자유아동극장 및 색동야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극장은 2년간 11만 여명의 어린이들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부산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1996년 8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먼구름 한형석 선생 연보>

## 한형석(韓亨錫)선생 연보

1910년  
2월 21일

부산시 동래구 교동서 아버지 한흥교(1885년생) 어머니 이인옥(1883년생)의 4남3녀 중 차남으로 출생.

1915년 5월

어머니, 삼촌, 형과 함께 상하이[上海]로 가서 처음 부친과 상봉.

1916년 3월

할아버지 위독하다는 거짓 전보받고 일가족 10개월만에 귀향.

1917년 겨울

아버지 연락받고 형 원석과 기차편으로 베이징[北京]으로 재차 출국.

1919년 8월

베이징 소재 육영소학교 입학. 3.1선언문 아버지 지시받고 인편으로 독립투사들에게 전달.

1923년 8월

베이징 육영 소학교 졸업

1926년 8월

베이징 육영 중학교 졸업

1927년 6월

할아버지 작고 전보를 받고 형석을 제외한 일가족 귀향. 부친은 형석에게 학자금과 명주 태극기 한 폭, 고향 흙 한줌을 건네주면서 의학공부를 하라고 이름.

1929년 8월

베이징 노하고급중학교 졸업. 부친의 친구인 애국지사 조성환 선생의 구국예술운동에 대한 권고로 상하이 신화예술대학 예술교육과 진학. 상하이 악기점 점원으로 고학생할.

1933년

상하이신화예술대학 예술교육과 졸업. 산둥성[山東省] 당읍현(當邑縣) 소재 무훈중학교서 예술 및 영어교사로 근무. 윤봉길의사 의거 이후 일제수시대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이름을 한유한(韓悠韓)으로 개명. 그 뒤 5년간 산둥성 각지를 전전하면서 첫 작품인 항일가곡 「신혁명군가」를 작사해 한서(罕西), 한희(罕希) 등 필명으로 발표. 「신혁명군가」는 중국인의 총화단결과 총궐기를 내용으로 한 군가로 중국 전군에 보급.

1935년

중국 산둥행정인원훈련소 교관으로 위촉. 지난(濟南) 소재 산둥성립여자사범부속소학교 교사로 전근. 중국 최초의 중국아동극장 창설. 후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처가 된 연극배우 장칭(江青)과 교류.

1937년 6월

첫 종합예술작품인 3막 짜리 가극 「리나(麗娜)」를 창작. 지난 아동극장서 상연. 시나리오 작곡 연출 주연.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1937년 10월	중국희극학회 소속 제2항일연극대장으로 40여명의 대원 이끌고 2년간 카이펑(開封), 시안(西安) 등과 전쟁터 전후방에서 대일항전계몽공작의 일환으로 순회공연. 순회공연 벽보는 향후 대자보의 효시가 됨.
1939년 6월	시안 황하출판사에서 항일가곡집 『승리만세』 출간.
1939년 6월말	중국 중앙군 34집단군 제10사 정치부 공작대장으로 임명돼 중조산 전투 참가.
1939년 10월	중국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로부터 전시공작 간부훈련단 제4단(간사단) 음악교관으로 발령. 계급은 소교(소령)
1939년 11월11일	충칭(重慶)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발족(대장 나월환)
1939년 12월말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시안 간사단서 위탁교육. 간사단 중교(중령) 음악교관으로 활동하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예술조장으로 임명.
1940년 4월	작곡집 『신가극삼곡』 출간(시안 신중국문화출판사서 신중국문화총서 제10권으로 출간)
1940년 5월22일 ~ 31일	중국 시안 난위엔먼(南院門) 실험극장에서 항전기극 『아리랑』(전3막) 초연. 수익금 4천102원 군인들 하복제작비로 사용.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최초의 가극은 현제명의 『춘향연』(1950년)이지만 이보다 10년이 앞선다.
1940년	중국 대동서국에서 작곡집 『낙원행진곡 삼곡』 출간. 단막극 『국경의 밤』, 『한국의 한 용사』 창작.
1940년 12월10일	항일아동가극 『귀신출』(승리무곡으로 개명), 항일아동시극 『다음 세대』, 아동극 『어린 양들』 등을 제작 작곡 연출해 시안 이곡사(易谷社) 극장에서 첫 공연.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송메이링(宋美齡)여사가 만든 전시아동보육원 산시제2보육원과 한중친선상호협력합작공연. 그후 1945년 종전까지 수신회의 공연 외에 김구 주석과 장제스(蔣介石) 위원장 초대공연도 가졌다.
1941년 1월 1일	한국청년전지공작대, 한국광복군 제5지대로 개편(지대장 나월환)
1942년 4월 1일	한국광복군 제5지대, 제2지대로 개편(지대장 이범석)

1942년	「국기가」 작곡(작사 이범석). 이 곡은 광복군 제2지대의 국기게양식과 해방 후 중앙청 국기하강식에서도 일정기간 연주됐다.
1942년 11월 1일	한중협력공동항전 목표 아래 광복군 제2지대 파견으로 전시아동보육원 산시제2보육원 부속 아동 예술반 주임을 겸임. 전시 고아 중 예술적 자질이 있는 아동을 선발해 음악 미술 문학 무용 교육을 실시. 아동음악회 미전 무용발표회를 개최. 이로 인해 광복군은 중국 각 기관 단체와 더욱 협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1942년 11월 1일	중국 시안 아동극장 창설. 산시보육원 예술학교장 및 아동극장장, YMCA합창단 지휘.
1943년 10월	시안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서 '한국광복군가집' 1, 2집 출간. 「광복군 제2지대가」, 「압록강행진곡」, 「조국행진곡」, 「출정」, 「아리랑행진곡」, 「국기가」 등 수록. 중국어로도 번역해 항전가곡집으로 출판.
1944년 3월 1일	중국군 부상병 위문모금 및 3.1운동 기념공연으로 시안청년당에서 4차 「아리랑」 공연.
1944년 10월 -1945년 1월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부장 겸 중국희극학회 부회장으로 대원을 인수해 3개월 동안 한국항전선전공작을 위해 산시성 등 서북 각지에서 순회공연.
1945년 4월	윈난성(雲南省), 쿤밍(昆明)에서 한미합동 OSS 특수공작훈련 이수-무선통신교육 정보 산악전투훈련 폭발파괴기술교육 낙하산교육 등(한국광복군 중교)
1945년	소속부대가 한국국내정진군으로 개편(총사령관 이범석)
1945년 8월 15일	시안서 단막극 「동포는 우리를 기다린다」 공연. 김구, 주석,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관, 중국 중앙군 요인들의 극찬.
1945년 9월 -1946년 1월	한국광복군 제2지대 산동성 지난 지역 특파원으로 파견. 교포송환귀국사업 종사.
1946년 3월 6일	노태준 대장으로부터 광복군 제2지대 정훈처 중령과장 지난 연락주임으로 임명.
1946년 2월 -1948년 7월	중국 국립산둥대학 예술지도원.
1948년 9월	중국 칭다오항에서 인천으로 30년만에 귀국.
1948년 12월	부산문화극장 설치책임자 및 관리자 임명.

1950년  
6월 18일

부산문화극장 개관, 극장장 임명. 개관 1주일만에 한국전쟁 발발. 문화극장은 미군 전용극장으로 변함.

1951년  
4월 28일

부산 동구 수정동서 결혼

1951년

세미다큐멘터리 영화 '낙동강' 기획(대본 주제가 가사 이은상, 작곡 윤이상 무용 조용자, 주연 최지혜). 낙동강 전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경남도 후원으로 낙동강 연변의 영남 문화 소개.

1953년  
8월 15일

부산 부민동 변전소 옆에 자유아동극장 겸 색동아학원 설립. 2년간 500여 회 공연 12만명에게 무료 관람. 색동아학원 예선 매일 밤 80 - 90명 직업 아동에게 국민 교육.

1955년 6월

부산대 문리대 중국어 강사

1963년

한국연극협회 부산시지부 초대지부장

1963년  
3월 ~ 8월

자유중국사범대학 국문연구소서 중국문학 연구.

1967년  
9월 1일

부산대 조교수

1969년  
1월 20일

탈극 「순절도」(전6과장) 출간.

1970년 5월

제13회 불원문화상 수상.

1971년 12월  
1일 ~ 10일

부산 보리수 다방에서 「충무공 추모 서예전」 개최.

1972년  
1월 20일

부산대 부교수

1972년 5월  
13일 ~ 21일

서울 국립공보관 제2전시실에서 이충무공 탄신 제427주년 기념 「충무공 추모 서예전」 개최.

1975년  
2월 28일

부산대 부교수로 정년퇴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1977년 12월

건국포장 수상.

1977년 12월

부산 상륙수합창단 제2대 단장.

1979년  
6월 30일

부산광복장학회 설립 주도, 2대 회장 역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수상.

1996년  
6월 14일

부산 부민동 3가 8번지 자택서 향년 87세로 작고, 양산 솔밭산 공원묘지 안장.

2002년

베이징 지식출판사 발행 가곡집 『잊을 수 없는 선율(難忘的旋律)』에 「황하강변의 달」, 「봄 하늘의 밝은 태양」, 「고향의 달」 수록.